

주임신부: 김대하 (요한 사도)
본당회장: 권병학 (요한 사도)
TEL: (905) 545-3004
FAX: (905) 545-7895

연중 시기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마태 4,14)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적립금액(\$76,263)

본당 소식

◎ 전례 안내

- ▶ 1/25(일) 연중 제 3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 1/27(화) 연중 제 3 주간 화요일 미사 (20:00)
- ▶ 1/28(수)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 미사 (11:00)
- ▶ 2/ 1(일) 연중 제 4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제병, 제주, 초 봉헌

올해 사용할 제병과 제주, 초 봉헌을 2/1까지 받습니다.
전례분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 합동 위령 미사

2/15(일) 주일미사를 설 합동 위령 미사로 봉헌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미사 예물을 받습니다.
마감: 2/8(일), 전례분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지가지 회수

재의 수요일 미사(2/18(수) 19:30)에 사용될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복도에 있는 바구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2/15(일)

◎ 성령 안수 예식

1/27(화) 20:00 미사 중 성령 안수 예식이 있습니다.

◎ 재정분과 공지사항

2025년 현금 영수증은 본당 사무실에서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재정분과장 하태성 베드로 형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의 수호 성인 이야기

오늘 수호성인 이야기는 <성 베네딕도>입니다.
다음주는 <성녀 수산나>입니다.

단체소식

◎ 시설분과

시설분과에서 함께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 시설분과장 정종만 루카 289-219-2204

◎ 은빛모임

2 월 은빛모임(2/1)은 '설날맞이 윷놀이'입니다.

◎ 사목회의

1/30(금) 19:30 에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 구역장 월례회의

1 월 구역장 월례회의가 2/1(일) 미사 후에 대철실에서
있습니다.

◎ Together Bloom (서로에게 빛이 되어 피어나다)

2026년 ME 의 밤으로 초대합니다.

대상: ME 주말을 다녀오신 모든 부부

일시: 1/31(토) 5 시 미사로 시작

장소: 토론토 예수성심 천주교회

260 Judson St. Etobicoke ON

참가비: 부부당 \$130

문의: 김영미 스텔라 289-823-0962

◎ 2026년 캐나다 한인 꾸르실리스따 쇄신 피정

일시: 2/6 (금) 오후 5 시 – 2/8 (일) 오후 3 시

장소: St. Francis Centre

208501 Highway 9, Caledon

주제: 만남/참가비: \$320

신청마감: 1/25 (오늘)

문의: 울뜨레야 간사 박혜영 수산나

◎ 가톨릭성서모임 <창세기/탈출기/마르코/요한반 모집>

4~6 명그룹으로 매주 1 회 화상을 통해 나눔 진행.

* 창세기 반: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 탈출기 반: 창세기 공부를 마치신 분

* 마르코반: 창세기와 탈출기 공부를 마치신 분

* 요한반: 창세기, 탈출기와 마르코 공부를 마치신 분

* 접수 기간: 2/15

* 문의: 이상은 엘리사벳 289-933-0242

공소 소식

◎ 2/1(일) 사목회의(미사 후 사목회장댁)

친교식사 및 제대꽃

오늘은 가정주일로 친교식사가 없습니다.

2/1: 5 구역

2/8: 6 구역

2/15: 7 구역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맑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 주소서. ◎ 아멘.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임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55 명)			
주일현금	\$1,585	교무금	\$100
감사현금	\$100	성전건립	\$675

감사합니다.

성모회 도네이션: \$300 (민연환 데레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함: \$223 (의명)

2 월 축일자 (10 명)

- | | |
|--|--------------------|
| 2/ 4 요안나(임성신) | 2/ 5 아가다(주소연, 이금자) |
| 2/ 8 요세피나 (박지나) | |
| 2/10 스콜라스티카(강영희) | |
| 2/16 아카페(오예선) | |
| 2/18 요한 프라 안젤리코(정이안) | |
| 2/26 이사벨라(이지민, 류혜진), 알렉산데르(이시훈) | |
| ▪ 수정사항이 있으면 구역장을 통해서 총무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 25	임연신 비아	최다혜 플로라, 최다희 보나	1 독서: 이준우 바오로 2 독서: 최다인 안나	이준서 요한 김규리 라파엘라
2/ 1	박규혜 카타리나	이준환 파비아노, 이준규 안드레아 이준서 요한, 이준우 바오로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김의수 안드레아 박혜영 수산나
2/ 8	임연신 비아	최다혜 플로라, 이소민 그레이스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인가?

이재현 루도비코 신부
사직대건성당 주임

해외 원조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흔히 원조 혹은 자선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게 번 '나의 것'을 좋은 마음으로 베풀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의 절대적 지배권을 강조하지만, 가톨릭교회는 모든 재화의 주권이 하느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사용권을 위탁받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재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재화의 소유주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때 죄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소유의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한번도 부자를 단죄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재물을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때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란, 모든 이(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위해 내려 주신 재화를 모두를 위해 사랑으로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수억 명의 이웃이 절대 빈곤 속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기아의 원인은 식량 부족이 아닙니다. 지구는 이미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정하게 나누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굶주림은 부족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복잡한 이해관계로 얹힌 세상의 부조리를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당장 굶고 아파하며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에서 아파하며 죽어가는 이들이 또 다른 착한 사마리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많다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멀리 있는 이웃을 돋지 않는 사람이 가까운 이웃을 돋는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멀리 있는 이웃을 도와본 사람은 그 경험과 기쁨으로 자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더 잘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그마한 행복 마저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처지에서 굶주림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우리 이웃이 희생한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해외 원조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복음적 정의의 실현입니다. 오늘 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회개의 삶의 증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나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신비로운 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신비로운 힘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아멘.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선포와 나눔의 해

2026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제 3 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외 원조 주일)

(2026. 1. 25.)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8,23 □-9,3

화답송

시편 27(26),1.4.13-14(◎1 ◎)



후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10-13,17

복음 환호송

마태 4,23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2-23